

한양대학교 2009학년도 수시 2학기-II 논술고사

인문계

논술

수험번호 () 성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 답안을 검정 볼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불필요한 표기를 한 경우
 - 3)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 4) 답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답안은 180분 안에 작성하시오.
3.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4. 수정 시 검정 볼펜으로 줄을 긋고 다시 쓰시오.
5. 답안지와 문제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1. 제시문 <가>의 관점에 근거해서 제시문 <나>와 <다>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논술하시오. (400~500자, 25점)

<가>

복잡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 상황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 일탈 행위를 하거나 갑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경우, 그 원인은 성격의 특성뿐만 아니라 더욱 확장된 범위까지 아울러야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한 시점에 작용했을 모든 상황까지 최대한 밝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외부의 힘은 그 힘의 구속을 받고 있는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은 대개 권위라든가 규칙, 규제와 같은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

<나>

이 실험에는 연구자, 피험자, 그리고 학생 역할을 맡은 연극자가 참여한다. 피험자들은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모두 교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피험자들은 학생이 연기자라는 것을 모른다. 피험자들이 도착하면 흰 가운을 입은 연구자는 피험자들에게 이 새로운 실험이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이 실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피험자들은 이 실험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한다.

실험에서 피험자는 교사가 되어서 학생에게 암기해야 할 단어 조합을 말해 준다. 교사가 핵심 단어를 말하면, 학생은 그것과 짝이 되는 단어를 정확하게 대답해야 한다. 답이 틀리면 교사는 별로 스위치를 눌러 즉시 전기 충격을 준다. 이 충격 장치는 15볼트에서 시작하여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15볼트씩 올라가 최대 450볼트에 이른다.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학생이 실수할 때마다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전압 스위치를 누를 것을 지시한다. 1단계는 그 충격이 미미하지만 10단계부터 강한 충격이 가해지고, 30단계에 도달하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

학생이 틀리게 대답하면 피험자는 스위치를 누르기 시작한다. 학생은 전기 충격 수준이 올라갈수록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면서 더 이상 실험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연극한다. 피험자는 망설이면서 실험을 계속해야 할지 물어보지만, 옆에서 실험을 지켜보고 있는 연구자는 “걱정 말고 계속 전압을 높여라. 책임은 내가 진다.”고 압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실험 결과, 충격적이게도 피험자의 65%가 마지막 단계의 전기 충격 스위치를 눌렀다. 대다수의 피험자는 학생이 멈춰달라고 애원했는데도 계속해서 전기 충격의 단계를 높였다.

이후 이 실험은 다양한 상황에서 실행되었다. 연구자가 실험에 입회하지 않았을 때는 위의 비율이 21%까지 떨어졌다. 또한 흰 가운보다 평상복을 입은 연구자가 입회했을 때는 마지막 단계까지 전기 충격을 높인 피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

간호사 22명이 전에 본 적이 없는 의사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그는 간호사에게 즉시 한 환자에게 약을 투여해 자신이 병원에 도착할 때쯤 약효가 나타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면 그 투약 지시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하겠다고 했다. 지시 내용은 환자에게 에스트로젠을 20mg 투여하라는 것이었다. 에스트로젠 용기에 있는 라벨에는 1회 투여량이 5mg이며 최대 투여량이 10mg이라고 적혀 있다. 의사는 그 최대 투여량보다 두 배를 더 투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간호사들은 낮선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과다 투여하라는 전화 지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런 독단적인 지시를 거부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했다. 그러나 그 의사가 곧 도착할 때가 되자 22명의 간호사 중 단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가 그의 지시를 수용했다.

2. 제시문 <가>와 <나>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서로 비교하시오. 그리고 그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제시문 <다>를 해석하기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논술하시오. (400~500자, 25점)

<가>

예술은 창조의 고통을 동반한다. 그것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이미 누군가 사용한 형식이나 내용과는 다른 순수한 세계를 창조하는 고통을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 이것은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가는 작품 외적인 현실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이른다. 이러한 거리의 확보는 곧 작품 자체의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술가는 온전한 창조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나>

예술가의 지위는 기술복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정한 변화를 맞이한다. 그 변화의 양상이 바로 예술의 자기 반영성이다. 이것은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반영성은 이미 차이를 내포한 반복과 비평적 모방을 잉태하고 있는 예술 양식이다. 예술은 이러한 반복과 비평적 모방을 통해서 자기 반영적 비평 형식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식의 출현은 새로운 세계와 스타일이 이미 대부분 시도되어 더 이상 독창적인 것과 스타일 상의 개혁이 힘들어졌다는 예술가의 고갈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켜 라디오가 되고 싶다.

- 장정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3.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에서 A가 B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와 제시문 <라>에서 Y가 Z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가>부터 <라>를 종합하여 개인의 정체성에 관해 논술하시오. (900~1000자, 50점)

<가>

개인의 정체성은 적어도 인간에 관한 한 심리적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개인의 정체성 근거로서 심리적 연속성 이론을 내세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나를 나로 만들어 주는 것은 심리적 특성의 덩어리이다. 내가 1년 전의 나와 똑같은 것은 그때 이후 연속적으로 존재해 온 심리적 특성의 덩어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덩어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철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수면 중에 의식의 흐름이 중단되는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 덩어리가 나의 성격, 기질, 가치체계, 장기간의 욕망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기는 특징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심리적 연속성이 기억에 따라 성취된다고 말한다. 내가 1년 전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것은 예전의 지각과 생각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기억이 이행(移行)의 연결 고리 노릇을 하여 여러 해 전에 태어난 나와 지금의 나를 이어준다는 이야기다.

<나>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태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나, 그 시절의 생각과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개인의 정체성 문제는 영혼 동일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비물질적인 영혼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탄생 시점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은 그 개인의 비물질적 영혼이다.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의 신체 부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혼 동일성 이론에 따르면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영혼이다. 영혼은 평생 동안 나의 신체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결부되어 있다가 나의 사망 시에 신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 뒤 신체 없는 형태로 존재하거나 다른 신체에 결부되는 방식으로 계속 존재한다.

<다>

탁월한 인형극 조종술사인 A는 유명 배우인 B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 통로에 들어간 A는 15분 동안 B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15분이 지나면 A는 B의 몸에서 빠져 나왔다. 통로를 통해 처음 B의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A는 자신이 B를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단지 B의 지각 흐름을 15분 동안 엿보는 것뿐이었다. A는 그 자신과 B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다. A는 그가 들어간 몸이 이질적인 것, 그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A는 자신과 B 사이에서 혼란을 겪다가, 인형극 조종술사의 경험을 이용하여 B의 몸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A는 자신이 B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라>

가파른 산길을 달리던 버스 한 대가 낭떠러지로 추락한다. 버스에는 X의 사랑하는 아내 Y와 귀여운 딸 Z가 타고 있다. 아내와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X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내 Y와 딸 Z가 숨을 거두려는 순간 아내의 영혼이 딸의 몸으로 옮겨간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그녀의 영혼이 딸의 몸을 빌려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그 이후 X는 딸의 몸을 가진 Y와 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X에게 남모르는 고통을 안겨준다. 열여덟 여고생 Z의 몸을 얻은 Y는 교복치마를 짧게 줄여 입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동아리 활동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심지어 학교 선배와 다시 찾아온 청춘을 만끽한다. 그러면서 Y는 자신이 Y인지 Z인지 혼동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남편과 아빠의 상반되는 심정으로 지켜보아야만 하는 X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X는 Y에게 서로의 행복을 위해, 아빠와 딸로 살 것인가 남편과 아내로 살 것인가 선택을 요구한다. 결국 Y는 딸의 삶을 선택한다.